

# 시대 따라 상상력 원하는 새로운 목록이 절실

## 새 세계문학전집을 반긴다

이중환

출판평론가 · 한국문화복지협의회장

민음사의 새 <세계문학전집> 발간은 우리의 60년대 출판의 교양시대를 회상케 한다. 그때 출판은 문학과 사상의 전집시리즈를 통해 사회의 교양과 지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출판은 삶의 양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가장 좋은 답안이기도 했다. 60년대에 10대와 20대로 살았던 오늘의 장년층은 이 무렵 전집의 세계에서 신념을 얻고 위안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출판의 힘이다.

### 세계 문학 전집에서 얻었던 신념

그래서 이 시점 새 문학전집에 제일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다시 한번 그 출판의 힘을 보여 줄 수 있는가이다. 90년대 들어 특히 우리 문학시장은 매우 가벼워지고 산만해졌다. 우리끼리 쓰는 말로 순수문학은 쇠잔해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장문학'이 서점의 서가를 뒤덮고 있다. 혹자는 그것이 새 문학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시장문학'이 인간정신의 품위를 뜻하고 있지 않음은 그 스스로도 주장하지 않는 바다. 주장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지 모른다.

문제는 통시대적으로도 변치 않고 의미와 가치가 살아 있는 읽기목록이 얼마나 계속 읽고 있는가이다. 그러한 목록이 지금 우리에게서 너무 과도하게 사라지고 있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은 이 읽기목록의 생명유지와 재생의 부담을 갖고 있다. 그것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피해갈지는 모르나, 지금의 상황은 민음사 전집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만큼 우리의 전반적 출판목록은 몰염치할 만큼 상업화됐다.

문학의 위대함은 그것이 어떤 예술장르보다 더 광범위하고 분명하게, 전문가나 비평가의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것이라는 데 있다. 문학이 숭상을 받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이를 읽음으로써 인간 존재의 차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전집은 이 차원의 상수를 집중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상업화현상에 얼마나 큰 자극과 충격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의 1회 배본 10권으로 어떤 신호가 이루어졌을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1회 배본이 100권쯤은 돼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우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

### 공개된 민음사의 새

#### <세계문학전집>의 목록

#### 30여종은 우리의 즐거운

#### 60년대 추억이 그대로 재현되고

####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 60년대만 재현되면 되는 것일까.

#### 60년대 목록이 모범답안이었다

#### 하더라도 독자는 이제

#### 90년대 독자가 아닌가.

#### 이런 반문이 있어야 한다.

외형적 양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공개된 민음사 목록 30여종은 우리의 즐거운 60년대 추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60년대만 재현하면 되는 것일까. 60년대 목록이 모범답안이었다 하더라도 독자는 이제 90년대 독자 아닌가. 이런 반문이 있어야 한다.

하긴 최근 30여년의 역사는 쓸 수 없다는 것이 사학계 원리다. 그렇다 해도 20세기 전반기의 평가와 수용을 점검했다는 심증은 어디선가 찾을 만큼 있어야 한다. 이 점이 새 문학전집의 돌파력을 돕지 못한 것은 아닐까 물어야 한다.

### 전집은 '좋은 책' 고르기의 상징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예술가들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대이다. 단적으로 산업이 창조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도 상상력 갖기를 권하고 있다. 이제는 창조적 사고력과 상상력을 갖지 않으면 단순노동직 하나 얻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 해도 무리한 말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창조적 상상력키우기 교육커리큘럼들이 구성되고 있다. 그 도구 중 가장 유용한 것이 읽기능력 키우기다. 읽기 목록 역시 기능적 지식이기보다는 상상력을 촉발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기준으로 삼는다.

굳이 집착하지는 않더라도 문학전집의 기준은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 전문가를 위한



전집은 '고르다'는 질의 의미를 상징한다. 시대에 따라 새로운 목록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집이 아닌 한, 대학교양교육 의무목록이 아닌 한, 이 시류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선 오직 새 문학전집의 출판을 찬양하지는 긴급함이 있다. 출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별로 중요시되지 않는다. 출판 지원을 위한 정부의 특별자금이 배정되기는 했지만, 이 지원금을 주는 관점은 사실상 관념적이다. 그저 출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체라는 평범한 인식 이상은 아니다. 책읽기가 중요해지고 있다거나, 학교도서관 목록을 새로 충실히 보완해야겠다거나, 공공도서관이 국민의 일상생활도구로 쓰여야 한다거나, 대규모 실업자군이 재교육을 받아야 할 장소가 바로 책의 터미에 있다거나 하는 시각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그 어느 주제에서도 좋은 책 고르기로 아예 없다.

이에 대한 출판의 입지도 마찬가지다. 책의 가치는 단지 팔리는 것에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누구도 진지한 견해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문학전집 시리즈는 무엇인가 '고르고 있다'는 질의 의미를 상징한다. 질에 대한 접근은 질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효과일 터이다.

최근 랜덤하우스의 자회사 모던 라이브러리의 자문위원들이 <20세기 영문학 걸작 1백선>이라는 리스트를 내놓았다. 우리는 몇 신문이 우리가 이는 목록만 일부 보도하고 말았지만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왈가

알부됐다. 왜 최근 25년간의 작품은 6편밖에 안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왜 백인남성의 목록인가, 평범한 작품만을 골랐는가, 따분한 게 기준인가 같은 지적이 그럴 듯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어 래드클리프 칼리지 학생들의 저항목록도 나타나고 모던 라이브러리 인터넷 사이트에는 계속 논쟁이 쌓이고 있다.

나는 이 목록의 절반은 번역됐다고 들었다. 영어문학이 우리에게서 득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독일문학 100선이나 프랑스문학 100선 목록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 제3세계문학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문학 100선은 언제 우리에게서 공동의 화제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

목록 작업의 의미는 그 어떤 목록의 '완벽성'에 있지는 않다. 하나 하나의 부족한 목록이 그 나름대로 가치와 질의 분별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 각자의 주문을 달지는 말자. 민음사는 민음사대로 하면 될 것이다. 단지 더 많은 목록작업이, 책으로든 목록으로든 만들어져야 할 당위가 있다. 그것이 진실로 새로운 각성이고 진전이다. ◆